

철저한 배수 관리로 여름철 풀사료 생산량 지킨다

- 폭염·집중호우 대비 여름철 사료작물 철저한 관리 필요
- 파종 직후 눌러주기(진압)로 싹 틔우고, 장마 전 배수로 정비로 침수 막아야
- 물 빠짐 안 좋은 논에는 내습성 우수 품종 활용해야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여름철 풀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파종 직후 초기 관리와 장마철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

전락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사료피, 사료용 옥수수, 수수류 등 하계 사료작물은 파종 후 관리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.

파종 시기에는 강수가 부족해 초기 생육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 특히 파종 직후 눌러주기(진압) 작업을 하면 종자와 토양이 밀착해 싹이 잘 트고 뿌리가 깊게 내린다. 이 과정은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.

장마철에는 비 오기 전 배수로로 미리 정비하고 비 온 뒤 24시간 이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관리해 침수 피해를 막는다. 특히 논 토양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습해에 취약하므로, 장마가 오기 전 배수로 및 퇴수구를 정비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한다.

만약 재배지 물 빠짐이 좋지 않다면 내습성 우수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 사료피는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.

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사료피 신품종 ‘조온’은 습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우수하다. 생육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은 조생종으로, 집중호우나 침수 피해를 본 이후에도 빠르게 재배할 수 있어 여름철 풀사료 수급 공백을 줄이는 응급 풀사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“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초기 활착 불량과 습해 피해가 늘어나 사료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.”라며 “파종 후 초기 관리와 장마철 배수 관리, 내습성이 강한 품종 선택 등으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. 여름철 하계 사료작물 안정 생산 관리 요령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1-580-6740)
		담당자	연구사	고하늘 (041-580-6771)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 농사로				

붙임 1

여름철 하계 사료작물 안정 생산 관리 요령

□ 하계 사료작물 특성 및 재배 관리

구분	내습성	사료가치	가축기호성	파종 및 수확시기
사료피	높음	중간	높음	파종: (1모작)5월 중순, (2모작)5월 하순~6월 상순 수확: 초장 120cm~출수기
옥수수	낮음	높음	높음	파종: (1모작)4월 하순~5월 상순, (2모작)5월 하순 수확: 황숙기
수수류(수단그라스)	중간	중간	중간	파종: (1모작)5월 중순, (2모작)6월 상순 수확: 출수기 *초장 120cm 이상 시 수확
사료용 벼	높음	중간	중간	파종: (1모작)5월 상순, (2모작)6월 상순 수확: 호숙기~황숙 초기 * 식용 벼보다 일찍 수확(출수 후 20~40일 경)

□ 장마철 배수로 정비 방법

- 배수 불량한 토양(논)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 발생 높음
 - * 침수 시 뿌리의 수분 흡수력 저하에 따라 잎의 시들음이 발생하며 고온 시 증상 심화
- 비가 온 후 24시간 이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 설치 필요
 - * 재배포장 끝머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낸 후 연결하여 물이 배수구로 완전히 빠지도록 설치



<배수 불량 논>



<배수로 정비>